



02 120 116 부

원주건설국

영월전화국

97 5 23

'97 원주 소본부 노사 전진 체육대회

'97. 5. 23

한국통신 원주전화국



대진표		득점안	
1	2	1	2
3	4	3	4
5	6	5	6
7	8	7	8
9	10	9	10
11	12	11	12
13	14	13	14
15	16	15	16
17	18	17	18
19	20	19	20
21	22	21	22
23	24	23	24
25	26	25	26
27	28	27	28
29	30	29	30
31	32	31	32
33	34	33	34
35	36	35	36
37	38	37	38
39	40	39	40
41	42	41	42
43	44	43	44
45	46	45	46
47	48	47	48
49	50	49	50
51	52	51	52
53	54	53	54
55	56	55	56
57	58	57	58
59	60	59	60
61	62	61	62
63	64	63	64
65	66	65	66
67	68	67	68
69	70	69	70
71	72	71	72
73	74	73	74
75	76	75	76
77	78	77	78
79	80	79	80
81	82	81	82
83	84	83	84
85	86	85	86
87	88	87	88
89	90	89	90
91	92	91	92
93	94	93	94
95	96	95	96
97	98	97	98
99	100	99	100

'97. 5. 23



1975 23

노조조직의 파행적 운영을 규탄한다

실체도 없는 유명조직인 국제지방본부에 대해

1996년 3월 15일 공사조직개편의 결과로 국제사업본부가 해체되어 마케팅본부, 전략영업본부, 네트워크본부, 해외사업본부로 각각 흩어졌다. 그리고 경쟁서비스인 시외 및 데이터사업과 국제사업을 담당하는 전략영업본부가 본사 사업본부로 새로이 태어났다. 따라서 국제사업본부 산하 조합원을 관할하던 노조조직인 국제지방본부는 노조규약 규정에 의거 당연히 본사조직과 통합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러나 유덕상 집행부는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외면하고 국제위원장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여 조직의 파행을 방지했다. 국제사업본부가 해체되자 국제사업본부지부는 즉각 해체하면서 실체도 없는 유명조직인 국제지방본부는 그대로 유지시켜 왔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본사지방본부 소속이던 시외 및 데이터사업본부 조합원들이 다수를 집하고 있는 전략영업본부를 '국제'소속이라고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일년동안 지부도 결성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서 조합비만 꼬박 쟁기고 지방본부 운영비로 남용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제6대 김호선 집행부는 지난 2월25일 조직정화방안으로 국제 및 통신망 지방본부를 본사직할 지방본부와 통합하여 본사지방본부로 일원화하고 그에 따른 조합선거를 3월25일 실시하도록 문서로 지시하자 기득권 유지를 내세운 기존의 3개 지방본부 위원장들이 김호선 위원장의 지시에 반발하여 중앙본부가 기결정사항을 반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이 결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간부들의 일신상의 안위와 영달을 꾀하는 파렴치한 행위로서 이렇게 상식과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사리사욕에 연연하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조합간부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이제 조합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재책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조합을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하는 재책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조직이 정화될 때까지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것이며 어떻게 공명선거를 기대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 3. 13

한국통신노동조합 ○○지방본부 서울국제전화국지부
지 부 장 박 중 철 올림



월전화국

평창전화국

흥성전화





한국의 미래를
우리의 손에
맡기자

1987년 3월 7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1987년 3월 7일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민주주의를
실현하자

'87 3 7



가회동사무소
加會洞事務所
Gahwong Office

헌법재판소는
날치기
불벼락
— 범국민대책위원회

날치기도 위험평결
못하는 헌법재판소
국민의 세금이
— 범국민대책위원회

날치기도 위험이지
국민생존권위협
— 더 심각한
— 범국민대책위원회

결
기가 위험
— 위
대책위

날치기는 당연히
위험!
노동법
채개약도 물론
— 범국민대책위원회

헌법재판소 아저씨
“날치기 위험” 이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 범국민대책위원회

을 시급히 판정하라!

97. 3. 19